

‘빙상’ 선전·‘설상’ 부진... 세대교체 과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2·은메달 5·동메달 2개 아쉬운 결과 유망주 발굴 적극 나서 4년 뒤 밀라노 올림픽 제대로 준비해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멋진 질주로 시상대에 오른 최민정, 황대현(이상 쇼트트랙), 차민규, 정재원, 김민석, 이승훈(이상 스피드스케이팅)에겐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4년전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이번 베이징 대회에서 쇼트트랙 단체전 남녀 계주에 참가한 일부 선수를 빼면 개인 종목에서는 새로운 메달리스트를 단 한 명도 발굴하지 못했다.

한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른 훈련 부족과 국내외 대회들의 축소 운영으로 아쩔 수 없이 '평창의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메달 획득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빙상 종목은 물론, 설상, 썰매 종목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설상에선 평창올림픽 스피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 '배추보이' 이상호에게 금메달을 기대했고, 스키투에에선 평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강원도청)에게 메달을 바랐다. 봅슬레이는 원윤종조, 컬링은 '팀 킴'만 바라봤다.

한국은 지난 4년간 평창의 영광을 뛰어넘을 새로운 영웅 발굴에 실패했다.

그 결과 한국은 첫 메달을 획득한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이번 대회에서 역대 가장 적은 금메달 타이 기록을 썼다.

한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대회 개막 전에 세운 금메달 1~2개의 목표는 채웠지만 아쉬운 결과다.

한국이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한 대회 금메달 2개 이하를 획득한 건 1992 알베르빌 대회(금 2, 은 1, 동 1),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금 2, 은 2) 이후 처음이다.

메달 획득 종목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 편중됐다는 것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힘든 환경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손뼉 쳐줄 만하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했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선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한국 쇼트트랙은 대표팀 전력 약화와 편파 판정 논란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최민정(성남시청)은 험담 메시지 트라우마와 각종 부상을 딛고 여자 1,500m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슈자나 스텔링(네덜란드)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대현(강원도청)도 남자 1,000m에서 나온 편파 판정의 아픔을 딛고 1,500m에서 금메달을 획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최민정. /연합뉴스

득해 의미가 컸다.

빙속도 마찬가지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 나선 차민규(의정부시청)는 직전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2부리그로 추락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에게 기쁨을 안겼다.

정재원(의정부시청)은 평창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이승훈(IHQ)의 페이스메이커를 맡았던 논란을 딛고 성장해 당당히 은메달을 차지했다.

반면 다른 종목은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래도 피겨스케이팅에선 남자 싱글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올림픽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했고, 여자 싱글 유영과 김예림(이상 수리고)도 각각 6위와 9위를 기록하는 등 남녀부 선수 모두 톱10에 포함되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메달을 기대했던 설상, 썰매, 컬링 등은 메달권에서 멀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움직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수를 키우야 할 각 종목 연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문제는 4년 뒤다. 언제까지나 '평의 유산'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순 없다.

한국 동계스포츠는 상처를 치료하고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년 뒤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새로운 국내 유망주 발굴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정재원(왼쪽)과 이승훈이 19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오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나란히 2,3위로 들어와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매스스타트 정재원 은메달·이승훈 동메달... 멋진 피날레

여자팀 간판 김보름 아쉬운 5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했다.

정재원(의정부시청)은 19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7분 47초 1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또 함께 결승에 진출한 이승훈(IHQ)은 7분 47초 20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7분 47초 11의 바르트 스빙스(벨기에)가 차지했다.

벨기에가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 이후 이번이 74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일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14위를 달리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메달 후보로 거론된 이승훈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이승훈의 금메달 획득에 한몫했던 정재원이 이번 대회에서는 직접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이승훈은 올림픽 2연패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날 메달로 한국인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승훈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통산 6개의 메달을 획득, 동계에서는 한국인 최다 메달 단독 1위에 올랐다.

하계까지 더해지는 사격 진종오(금 4 은 2), 양궁 김수녕(금 4 은 1 동 1)과 함께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올림픽 선수가 됐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 간판 김보름(강원도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위의 값진 성적을 거뒀다. 김보름은 19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8분16초1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5위로 통과했다.



김보름이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5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숨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일린 구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고 스타

금 2·은 1개 '중국의 영웅' 노르웨이 요하네스 보에 4관왕

20일 폐막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여러 별이 뜨고, 또 졌다.

개최국 중국의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에일린 구(중국명 구아잉·사진)는 이번 대회 최고 스타라 할 만하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일린 구는 원래 미국 국적이었고 미국에서 스키를 배웠지만, 2019년부터 중국 국가대표로 뛰었다. 에일린 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이라는 확실한 성과까지 올리면서 중국의 스포츠 영웅으로 우뚝 섰다.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빅에어와 하프파이프에서 2관왕에 올랐고, 슬로프스타일에서 은메달을 걸었다. 동계올림픽 스피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다.

남자 바이애슬론의 요하네스 보에(노르웨이)는 이번 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며 새로운 '바이애슬론 황제'로 등극했다. 보에는 바이애슬론 남자 10km 스프린트, 30km 계주, 24k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가장 마지막에 열린 남자 15km 매스스타트에서도 우승해 4개의 금메달을 쓸어들었다. 보에는 20km 개인에서 동메달도 하나 획득했다. 올림픽에서 4관왕이 탄생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보에의 같은 나라 선배인 '원조 황제' 올레 에이나르 비에르달렌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게 마지막이었다.

보에는 2018년 평창에서 따낸 것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총 8개(금 5·은 2·동 1)의 메달을 수집했다.

남자 피겨 싱글에서는 일본에서 '신상'이라 불리던 가기야마 유마가 별명처럼 새 스타로 떠올랐다. 가기야마는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하뉴(4위)는 물론 우노(동메달)까지 넘고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아침 차게 알파인 스키 5개 개인 종목에 모두 출전한 '스키 여왕' 미케일라 시프린은 개인전 '노메달'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시프린은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실격했고, 슈퍼대회전과 활강에서는 각각 9위와 18위에 머물렀다.

평창 대회에서 남자 스키투에 금메달을 따낸 아시아인 첫 올림픽 썰매 메달리스트가 된 윤성빈(강원도청)은 이번 대회를 12위로 씩씩하게 마무리했다.

또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최고 스타인 고다이라 나옴은 여자 500m에서 17위, 1,000m에서 10위에 그쳐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평창 대회에서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을 따냈던 고다이라의 서른여섯 살에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해야 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코로나에 '덜미'... 힘겨운 4강 싸움

선수단 15명 중 9명 확진 판정 삼척시청 경기 출전 못해 몰수패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코로나에 덜미를 잡혀 힘겨운 4강 싸움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예정이던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삼척시청과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규정에 따라 삼척시청의 10-0 몰수경

기 승리로 기록됐다. 이어 20일 열린 예정이던 컬러풀대구와 경기도 취소대 출지에 2패를 떠안게 됐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단 15명 중 코칭스태프 포함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잡은 광주도시공사는 가시발길을 걷게 됐다. 최근 3연승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상황이기에 때문에 더 뼈아프다. 코로나로 2패를 떠안으면서 출지에 7승7패를 기록, 2위에서 5위로 순위가 곤두박질했다. 더구나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삼척시청(승점 23점)

에 이어 2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2점차밖에 나지 않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선수들이 코로나 이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의 다음 경기는 25일 인천시청전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